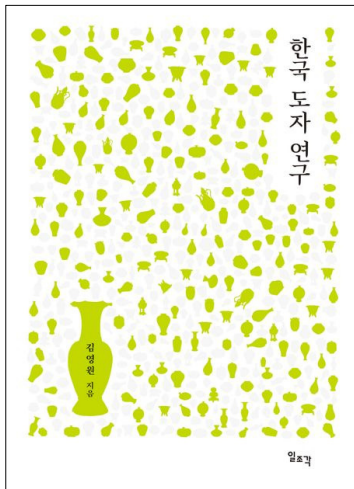


書評

김영원 지음,
『한국 도자 연구』
(일조각, 2025)

김윤정*



김영원 선생님의 『한국 도자 연구』는 40여 년간 한국 도자 연구에 전념해 온 저자가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도자사를 집대성한 전문연구서이다. 표지부터 다양한 그릇의 형태를 디자인화하여 저자의 실물 중심 연구 철학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한국도자를, 제2부는 동아시아 도자를 다룬다. 기존 한국도자 연구서들이 도자기의 편년에 기반한 구성을 취했던 것과 달리, 이 책은 저자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분야별 각론으로 구성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흥미로운 각론들을 하나씩 찾아 읽다 보면, 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

한 분량마저도 이 책을 읽는 데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저자는 오랫동안 국립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도자를 실제 접하며 도자 연구에서 실물 자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연구 방향이 저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가마터, 소비지 등의 유적 발굴품과 전세품으로 남아 있는 도자 자료를 바탕으

*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증적 연구 방법에 입각한 각론 중심의 학술서답게 한국 도자 및 관련 중국, 일본 도자를 비교사적 관점에서 다룬 시대별 주제가 매우 흥미롭다.

1부에서 백제에 수입된 중국 도자, 통일신라시대 녹유도자, 후백제 건훤과 진안 도통리 요지 청자와의 관계, 강진 청자, 부안 청자, 비안도 해저 출수 청자, 분원 자기, 충효동 분청사기, 계룡산 학봉리 도자, 회암사지 출토 자기, 양구·청송 백자 등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저자의 실증적 연구 방향이 그대로 반영된 각론으로, 매우 흥미로운 주제들이 연속적으로 제시된다.

2부는 한국도자를 동아시아 전체 맥락에서 조명하면서 실물 자료를 중심으로 교류사 및 비교사적 관점으로 접근한 점이 특징이다. 한국도자와 중국, 일본 도자와의 관계를 교류와 비교라는 두 축 안에서 다양한 각론을 통해 서술하였다. 한·중·일 도자 교류와 영향에 관심이 있다면, 한반도 출토 중국 자기, 신안 해저 출토 중국 도자,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일본 고려다완, 일본 민예관 소장 한국 도자 등 다양한 주제별 내용을 만날 수 있다.

이 저서의 또 다른 매력은 풍부한 시각 자료에 있다. 시대별 다채로운 각론 외에도 출토품과 전세품의 고화질 사진, 광주 분원 가마터 분포도, 동아시아 가마터 분포도 등 시각적 이해를 크게 높이는 자료들이 다수 수록되었다. 실증적 연구라는 저자의 연구 철학에 걸맞게 정교하고 풍부한 도판들이 실려 있어,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도 이 책만의 특별함이다.

『한국 도자 연구』는 오랜만에 출간된 한국 도자기 연구의 종합 정리서이자 고수준의 전문 학술서이다. 한국 도자기 연구자와 전공자는 물론, 한국 도자 문화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귀중한 참고서이자 필독서로 손색이 없는 역작이다. 40여 년간 축적된 저자의 연구 성과와 통찰이 집약된 이 책은 한국 도자사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